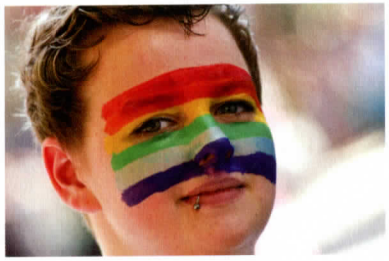
성소수자 권익 보호 (LGBTI 권익 보호)

연방정부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 성소수자의 국제적 명칭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간성(약칭 LGBTI)'이다. 인권에는 성적지향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여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처벌의 대상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 dpa

슈투트가르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 참가한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에 무지개 깃발을 그려 넣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3년 6월에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간성)의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이 제3국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구조적 원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성소수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 및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수호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은 제3국 관련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유럽연합 인권분과위원회(COHOM)에 의해 협의되었다. 유럽연합 인권분과위원회는 전세계 인권 실태를 관찰하고 지침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UN

심지어 유엔 내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열린 토론은 여전히 엄격하게 금기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2007년 3월 23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권전문가들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발표했다. 총 29개 원칙으로 구성된 "욕야카르타 원칙"은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인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의 철폐와 동성애자들의 교육권, 가족형성권, 집회의 자유, 망명요청권 보장이다. 독일정부는 "욕야카르타 원칙"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논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기여라고 여기며, "욕야카르타 원칙"을 유럽연합 성소수자를 위한 방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성소수자의 특정 권리와 관련하여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선언문"**이 낭독되었으며, 현재 68개국이 이에 서명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과 함께 최초 서명국에 속한다. 선언문은 인권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의 내용을 포함하며,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차별, 박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16차 총회에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폭력 및 인권 침해 종결에 관한 공동선언서"**가 채택됐다. 이미 85개국이 공동선언서에 서명을 마쳤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는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인권,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결의문"**을 꼽을 수 있다. 이 결의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발의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성애가 여전히 처벌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투표 결과 23개 국가가 찬성, 19개 국가가 반대하여 결의문은 아슬아슬하게 채택됐다. 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연방외무부

독일의 유명 동성애자들

토마스 히츨슈페르거 (Thomas Hitzlsperger)

전 프로축구선수. 독일 대표로 A 매치 52 경기를 소화했으며, 2006 월드컵과 2008 유로컵에 출전했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했다. 현역 은퇴 후 프로축구선수로서는 최초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했다.
"축구계는 동성애를 무시해 버리지만, 언론에서는 수년 전부터 동성애가 이슈화되고 있다. 동성애 성향의 축구선수는 차마 자신의 성향을 밝히지 못한다. 축구계가 여전히 마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축구선수들에 대한 선입견이 상당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토마스 히츨슈페르거는 2014년에 커밍아웃한 이후 마그누스 히르슈펠트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재단과 함께 노력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는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picture alliance / Geisler/Fotopress

2014년 함부르크 기차역에서 열린 ZDF 여름모임 2014에 참석한 토마스 하츨슈페르거

© dpa

두냐 하얄리

두냐 하얄리 (Dunja Hayali)

두냐 하얄리는 이민자 출신(이라크 출신 부모)의 독일 여성 저널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오늘의 뉴스' 앵커로 발탁됐다. 두냐 하얄리는 여성과 동거 중이라고 공개했다. 두냐 하얄리는 '얼굴을 보여라! 열린 독일을 위하여' 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UNICEF 후원자이기도 하다.

© dpa

2015년3월 ARD의 귄터 야우흐 토크쇼에 출연한 토마스 자텔베르거

토마스 자텔베르거 (Thomas Sattelberger)

5년 간 도이체 텔레콤에서 인사관리 임원이었던 독일 경영인. 독일 최고 경영인 가운데 거의 최초로 은퇴 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나는 적절한 용기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업의 최고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업에서라면 존재하기 마련인 보이지 않는 한계를 때때로 뛰어넘곤 했다. 도이체 텔레콤에서 도입한 여성할당제(임원의 30%가 여성이어야 함)나 동성애 네트워크 '무차별(Queerbeet)'의 후원자가 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테아 츠뵐퍼 (Dorothea Zwölfer)

도로테아 츠뵐퍼는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독일 바이에른주의 유일한 여성 목사이다. 아내와 교회에 커밍아웃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커밍아웃 후 강연, 2016년 2월 4일에 프랑크푸르크대학에서 개최될 국제학술회의 준비, 청원운동 및 블로그(www.aufwind2012.wordpress.com) 운영 등을 통해 성전환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츠뵐퍼는 그간 숨겨야만 했던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Maria Irt

도로테아 츠뵐퍼